

유라시아 헤드라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17. 07. 26 [제338호]



한양대학교 HK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헤드라인 뉴스들을 정리하여 매주 국가별로 요점과 관련 기사 링크를 제공합니다.

크림 재통일의 교훈, 러시아 학교 커리큘럼에 추가

벨라루스 방문 중 미 육군 소령 의문사

아제르바이잔, 터키에 200억 달러 투자 예정

조지아-우크라이나, EU 가입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크림 재통일의 교훈, 러시아 학교 커리큘럼에 추가

러시아의 교육부는 학교의 러시아사 수업이(크림의 재통일, 뒤이은 제재와 대응 제재 등)최근년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포함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초중등 학교의 교사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증된 사실관계를 선별해 내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현대 러시아사에 대한 지식 결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러시아의 여러 지방들에서 적어도 한 달에 한번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하도록 하는 실험 프로젝트를 가동하도록 제안하였다.”고 이즈베스티아 신문이 익명의 교육부 출처를 인용 보도하였다. “우리의 주요 목표는 학생들에게 아직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최근의 역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러한 소식은 2016년 말 푸틴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연례교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 나온 것이다. 대통령은 학교의 역사 수업이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어떻게 평화와 합의를 성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별 시민들이 러시아의 국가 생활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법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봉구)

[기사 원본 보기\[2017-07-20, RT\]](#)

벨라루스 방문 중 미 육군 소령 의문사

지난 6월 벨라루스를 방문한 미 육군 소령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고 7월 6일 보도되었다. 카일 타펠(Kyle Tafel, 36세)의 아버지는 아들이 고모 둘과 함께 벨라루스를 방문 중이었다고 말했다. 고모 하나가 역도대회 참가 차 갔던 것이다. "카일은 고모를 응원하러 간 거였고, 내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고모들을 경호하고자 했던 것 같다. 그 나라가 편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카일의 아버지 케빈 타펠 (Kevin Tafel)이 말했다. 그는 아들이 마지막 날 밤에 호텔 카지노에 갔다고 말했다. 거기서 일단의 마찰이 있었고, 경비원은 카일을 고모들과 함께 묵고 있던 호텔 방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서 그는 "아들은 고모들에게 말했다. '그자들은 피를 원했다.' 두려워서 그들은 호텔방문을 막았고 아무도 출입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아버지가 말했다. 그로부터 3시간 후 경찰이 호텔방에 왔고 고모들에게 카일의 시신이 호텔 밖 보도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죽었다. 아버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벨라루스 당국은 카메라 기록에 따르면 창문 밖으로 떨어지기 전에 취한 병사가 방에 혼자 있었다며 살인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심지은)

[기사 원본 보기\[2017-07-07, RFERL\]](#)





아제르바이잔, 터키에 200억 달러 투자 예정

<터키-아제르바이잔비즈니스협의회>의장 아카트(Selçuk Akat)는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까지 터키 경제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회사(SOCAR) 터키에 대한 투자 목표를 180억 달러에서 195억 달러로 늘린 것을 고려하면, 아제르바이잔은 2020년까지 터키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의 대부분은 SOCAR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SOCAR는 알리아가(Aliaga)에 1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아카트 의장은 양국 간 무역 회전을 감안할 때, 1월~5월에 이 수치가 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며 “우리의 무역 회전율은 2000년 326백만 달러, 2006년 103.5억 달러, 2013년 33억 달러였습니다. 작년 무역 회전율은 약 16억 달러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며, 이제는 경제 잠재력을 실현할 때가 온 것입니다”라고 발표했다. (박영은)

[기사 원본 보기\[2017-07-20, APA\]](#)

조지아-우크라이나, EU 가입 위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향한 양국의 노력을 조직화하는 데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기오르기 마르그벨라쉬빌리 조지아 대통령과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월 18일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설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마르그벨라쉬빌리 대통령은 이 선언문은 양국의 실제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언급하고 “우리는 유럽으로의 통합에 관해서 우리의 노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양국은 우리의 주권, 지역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를 동시에 수호해야한다”고 언급했으며, 양국은 동일한 도전과 위협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스크 협정이 충분히 실현되고 점거된 지역에서 무장군인들이 철수할 때까지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압력을 증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조지아에서 점령된 지역은 아브하지아와 남오세티아이며,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림 반도와 우크라이나의 동부”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2014년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점령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전쟁을 벌인 반군을 지원해왔다. 2014년 4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현재 1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 이후 전격적으로 러시아는 조지아의 자치공화국인 남오세티아와 아브하지아 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승인했고, 이 지역에 수천 명의 군인을 주둔하고 있다. (정세진)

[기사 원본 보기 \[2017-07-18, RFERL\]](#)

